

지역 소식통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 가족사랑 공모전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영자)가 양성평등 가족사랑 공모전을 연다.

23일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 없이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 가족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가족구성원이 자녀양육·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하는 행복한 모습의 사진(UGC,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 수기, 가정·직장 내 양성평등 실천 사례 등을 담은 생화 수기)다.

완주군 주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내달 22일까지로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로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심사를 거쳐 우수작 6편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양성평등기념식에서 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문은 227-6090으로 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지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 초청 간담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농림축산분야 관련 부서장과 송 혁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장 및 관내 15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등 3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농림축산분야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을 통한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새만금 신항만 구역내 어항 조성에도 힘쓰겠다"면서 "이를 통해 김제시가 대한민국 대표 농축산업 도시와 새만금 대표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영농철 일손부족 지원 성과

완주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농업분야 코로나19 극복 한 몫

20여 일 만에 실적 1300여 명... 영농철 시름에 잠긴 농촌 지원 호평

코로나19로 심화된 영농철 일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에 문을 연 완주군의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이 단기간 내 큰 성과를 내는 등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완주군은 23일 군청 4층 영농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농업인력 지원, 방역대책 추진 상황, 해외입국자 안전보호협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완주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군청 안에 지난달 말 개소한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이 가동 20여 일 만에 1,371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단기간 내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력사무소 지원과 함께 농작업 대행 지원, 일자리센터 지원 등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의 단기간 내 좋은 성과는 관련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급 현황을 파악·분석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 시스템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에 지난달 27일 설치한 상황실은 완주군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와 농작업대행단, 농업기술센터 일손돕기추진단 등 기관별 인력지원 조직과 연계해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봉봉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안에 설치된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

인·구직을 연결하는 농촌인력중개와 농가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산, 화산, 삼례농협에 설치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는 신규 영농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중개에 따른 실습교육비와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일손돕기 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기관, 단체, 군부대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가동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철우 부군수는 "영농철을 맞은 농촌의 일손 부족 시름을 덜어주는 등 농업 분야의 코로나19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며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고위험 시설의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농업 분야 대응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성덕면 용소마을 이장 양경철씨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찹쌀 100포대를 성덕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장님의 훈훈한 찹쌀 기부

성덕면 용소마을 이장 양경철씨, 코로나19 극복위한 나눔 실천

김제시 성덕면 용소마을 이장 양경철씨는 23일 성덕면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찹쌀 5kg 100포대를 성덕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양경철 이장은 보릿고개시절 어려운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무일푼으로 시작해 오로지 근면함과 성실한 노력으로 논 30필지 이상을 보유한 대농이 되었으며, 평소 이장으로서 모범적인 활동하며 해마다 꾸준한 기부 활동을 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을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양경철 이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더 심해진 것 같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수 성덕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기부자의 좋은 뜻을 담아 관내 독거 노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균형위, '지역혁신역량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전북의 미래·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자리 성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함께 전북의 미래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균형위 뿐만 아니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균형위 전략기획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LH 등 공공기관과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발표,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의 주요과제인

수질 개선을 위해 만경강 고수부지 정비를 통해 자연강둑을 조성하는 '새만금도 수질개선 추가사업',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인 황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황산 구)공군 5포대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령화 및 학령기 청소년 유출 등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한 김제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성장·up 바우처 지원사업' 등 지역 주요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을러, 균형위의 의결을 통해 정부와 지역발전추진협약을 맺은 가족센터 등 생활 SOC 복합화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최정운 (썬)한우물 대표가 기업

운영에 관한 우수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중소기업 운영에 따른 고충과 건의사항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은 모두의 바람이나, 상대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이 소외된 소도시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며 균형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인구감소의 사회경제적 요인인 교육·문화·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구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더욱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공무원노조 '과식투쟁으로 소상공인 응원'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지석)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분담하고자 과식투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식투쟁이란 김제시 관내 음식점에서 조합원 4인 이상 식사를 하고 인중샷과 영수증을 노동조합으로 제출하면 식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감염병으로 위기에 빠져있고, 김제시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매출 하락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

최지석 위원장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배려하여 나눔의 온정을 전달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 결제' 가능

완주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23일 완주군은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카드사용불가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총 9곳 중 군청민원실, 삼례, 봉동읍사무소, 이서, 상남 5곳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마쳤다.

나머지 4곳은 시설 노후로 단말기 설치가 어려워 점차적으로 시설교체를 실시해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는 기존 현금 납부 이외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도 무

인민원 발급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자세한 무인민원운영현황(장소, 운영시간, 발급종수)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 결제 방법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군의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으로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원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문제 발생을 대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를 모두 원도우 10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